

2021
수특

2021 수능특강 문학 1. 개념학습 5강 산돼지 김우진 분석서술형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동학군으로 활약하다가 죽은 아버지를 둔 최원봉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도 죽고, 아버지의 친구 최 주사 부부에 의해 양육된다. 최 주사는 죽으면서 아내에게 딸 영순과 원봉을 혼인시키라는 유언을 남긴다. 원봉은 청년회 상무 간사로서 바자회의 수익금을 유용해 **청년회로부터 불신임을 당한 상태에서 이를 덮어 주려(바자회의 수익금 중 50원을 유용한 일)**는 친구 차혁과 말다툼을 하게 되고, 애인 정숙을 떨쳐내는 과정에서 '산돼지'라는 별명을 얻고 몽환병을 앓는다. 그런데 최 주사댁은 영순에 대한 애정 때문에 남편의 유언을 비밀에 부쳐 두고 영순을 차혁과 혼인시키려고 한다. 원봉은 영순이 친동생이 아님을 알고 있는데 반해 영순은 원봉을 친오빠로 알고 있다. 원봉은 꿈속에서 병정에게 맞아 거꾸러지는 어머니를 본다.

최 주사댁 : (들어와 일으켜 주며) 아, 불쌍해! 가엾어라! 못 일어나겠니?

원봉 : 어머니! 왜 이 모양으로 나를 내놓았소? **산돼지 한 마리(원봉 스스로가 자신을 가리키는 말.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자조가 담긴 표현) 내놓으면 무슨 극락세계로나 갈 줄 알았소?(자신의 양엄마 최 주사댁에 대한 불신이 내재됨.)**

최 주사댁 : **온몸이 아프니? 옆구리가 그러도 아프니? 그 무지막지한 병정 놈이 널 차 내부쳤구나! 염라국으로 쫓아 보낼 녀석 같으니! 오, 불쌍한 원봉아!(아픈 원봉에 대한 안타까움과 걱정)**

원봉 : 당신한테서 불쌍하단 소리 듣기 싫어요! 무슨 심정으로 날 내놓았느냐 말이요! 대답 좀 해요!

최 주사댁 : 내가 어찌 아니? 내가 어찌 알 수가 있니? **영순이 어머니인 내가!(자신을 친엄마로 대하지 않는 원봉에 대한 서운함이 내재된 발언. 원봉의 친엄마가 아님을 알 수 있음.)**

원봉 : (놀라며)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갔소? 우리 어머니 찾아 주오.(꿈에서 병정에게 맞아 거꾸러지는 어머니를 봤던 환영이 현실에서까지 내재됨.)**

최 주사댁 : 내가 어떻게 아니. 영순이 어머니인 내가!

원봉 :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소? 그것이나마 찾아 주오.

최 주사댁 : 내가 어떻게 아니. 영순의 어머니인 내가!

원봉 : **당신(최 주사댁에 대한 적대감과 거리감이 내재된 표현 ①)언제까지 날 그렇게 속일 작정이요?**

최 주사댁 : (가슴을 쥐며) 그 말을 내 입에서 듣구 싶거든 이 가슴을 칼로 찍어 낸 뒤에 다시 물어보려 무나!

▶ 최 주사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가진 원봉

원봉 : 그러면 영순이더러 물어보겠소. 개는 날 사랑하니까. (영순이 나와서 어린애처럼 철모르는 얼굴을 해 가지고 쳐다본다.) 영순아, 너는 아니? 우리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영순 : **오빠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있긴. 여기 계시지 않아요.(영순은 원봉이 자신의 친오빠인 것으로 알고 있음을 알려주는 부분)**

최 주사댁 : (둘이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보고) 애들아, 그게 무슨 짓이니?

원봉 : (영순을 입 맞춰 주며) **너 어머니(최 주사댁에 대한 적대감과 거리감이 내재된 표현 ②)가 저렇게 날 어린애로 대접하니까 어디 어머니 정이 들어오니? 너는 내 동생이지, 내 동생. 아 변치 않는 내 동생! 내 동생!**

영순 : 오빠! **정숙(원봉의 약혼녀)이란 년한테 굶힌 오빠 가슴은 내가 꼭 낫게 해 드릴 테예요.(약혼녀와**

의 사랑에 실패한 원봉에 동정과 연민의 정서를 느낌) 이 몸이 녹아서 녹아서 백 번이라도 녹아서 옛날 임금님의 발에 발라 드리던 몰약이 되는 것도 사양치 않고! 불쌍한 오빠!

원봉 : 아, 영원을 잊어버렸던 산돼지(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 눈에도 눈물이 나오는구나.

최 주사댁 : 원봉아, 내 말 끝이듣고 참아라. 내 말 끝이듣고. 이 애 어미 되는 내 말을 끝이듣고.

영순 : 어머니 말도 끝이들어 줘야 해요. 네, 오빠!

원봉 : 당신한테 아무 관계없는 내게다 그게 무슨 염치없는 말씀세요?

▶ 원봉에 대한 영순의 연민과 동정

최 주사댁 : 영순아, 어서 나가 봐라. 너나 내 말 끝이들어 다오. 혁이가 와 기다리고 있다.

원봉 : (영순을 안고 안 놓으며) 혁이? 그놈은 연한 살에 고름(차핵에 대한 적대감과 거리감이 내재된 표현)과 마찬가지로. 이런 순결한 애를 당신 딸이라면서 왜 중히 여기지 않소? 굶기지 않고, 옷 안 벗기고, 아들딸 많이 낳게만 만들면 그만 될 것 같소? 이 애는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순결하고도 깨끗해요. 여름밤 하늘에 별보다도 더 귀엽고 값이 있어요. 이런 귀한 <보석>을 더러운 <집돼지> 발밑에다가 내던지려고? 왜 자기 손에 든 <진주>를 그렇게 더럽히려고!(영순을 '보석'과 '진주'로, 차핵을 '집돼지'로 비유함으로써 차핵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고 있음)

영순 : 나는 그래도 안 더러워져요. 오빠! 나는 결코 안 더러워질 테예요. 오빠만 안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은 영원히 안 더러워질 테예요.

최 주사댁 : 애야 어서 나가 보라니까! 안 나갈 테니 그만 뒤라, 내가 불러오겠다. (나간다.)

▶ 차핵에 대한 원봉의 적개심

영순 : 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는데! 오빠, 혁 씨 부르러 갔는데! 나 가 보고 올 테야!

원봉 : (영순을 끌어안고) 네 눈은 곱구나. 저기 저 하늘 보이니? 네 눈같이 곱고 맑고 티끌 한 점 없이 밝은 저 하늘이 보이니? 저 하늘같이 곱고 맑고 티끌 한 점 없이 밝은 네 눈에 저 하늘이 보이니?(몽상적, 몽환적인 장면이 삽입으로 원봉의 내면적 갈등 및 이에 따른 원봉의 의식 세계를 보여 줌.)

영순 : 네, 네, 네, 보여요. 잘 보여요. 어찌 그 내 하늘에 올라가 앉은 것처럼 이렇게 몸이 가벼워져요.

원봉 : 몸이 마음이 다 편하지 않니 하늘가까지 보이지 넓고 넓다란 바다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다 보이지? 그것이 하늘이다. 그리고 저기 저 밑에 <누런 먼지가 가득히 쌓인 세계>(<> :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주인공의 환멸)가 보이지 않니?

영순 : 네네, 보여요. 아이구, 갑갑하고 <더러운 세계> (눈을 가리며) 아, 저런 속에서 어떻게 사나!(살아가기 힘든 현실에 대한 인식. 1920년대 지식인들이 자신의 이상을 펼치지 못하고 좌절하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 인식이 내포되어 있음)

원봉 : 너도 그 속에서 살아 있다.

(중략)

영순 : 아 참, 보이는군요. 저런! 저런! 비행기 모양으로 날다가 뚝뚝 떨어지네. 에그 불쌍해! 어머니도 저 속에 있어요? 혁 씨도 저 속에 있어요?

원봉 : 아, 그런 사람들(차핵과 최 주사댁에 대한 적대감과 거리감이 내재된 표현)은 생각해서는 못 쓴 다니까!

영순 : 아, 오빠! 괴로워! 아, 오빠! 나하고 저리로 올라가요. 아, 괴로워! 여기는 다 올라가지 않고 중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것 아니에요? 구만리장천 저 위예까지 같이 올라가요. 내 손 잡아 줘요! 내가 끌어올릴 테니!

원봉 : 내 몸이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연약한 네가 날 끄집어 올리니? 산돼지는 땅 위에서밖에 못 큰 단다!(현실에 대한 저항에 실패하고 이에 좌절 끝에 체념한 원봉. 주인공이 느끼는 환멸감을 보여 줌)

영순 : 그래도 내 힘껏 끌어 볼 테야! 아, 날 놓지 말아요. 이 팔을 꼭 붙들어요. 이 팔을! 아, 오빠!

▶ 세상 사람들에 대한 환멸감을 느끼는 원봉

혁 : (들어와서 한참 동안 보고 섰다가 그만 달려들어 영순을 꼬집어낸다.) 세상이 말세가 되니까 **별별 고약한 짓**(원봉과 영순이 서로 팔을 붙들고 부동켜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에 대한 불쾌감 표출)이 다 생기는군! 영순 씨 **저건**(원봉에 대한 차혁의 적대감과 거리감이 내재된 표현) 당신 오라버니가 아니오? 아, 그 눈을 해 가지고도 안 보이오?

원봉 : 흥, 왔구나. **너무 일찍 온 게 잘되었다**.(반어적인 표현)

영순 : (혁이 가슴에 안기며) 아! 선생님! (둘이 안고 나간다.)

원봉 : 흥, 데려가거라. **산돼지한테 맡겼다가는 산돼지 배 속밖에 못 채워 준다**.(영순과 혁의 애정 관계를 결국 인정함. 또한 '산돼지'라는 말에는 자기 비하의 감정도 내포되어 있음)

최 주사댁 : (들어오며) **내 말 끝이 안 들더니 그것 보라. 그래도 너를 갖난애 때부터 기르던 에미가 아니니?**(자신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원봉을 향한 안타까움의 정서)

원봉 : 어머니 흥계는 나도 인제 넉넉히 알았소. 그만두슈.

최 주사댁 : 내 말을 끝이들어야 한다. **네 어머니**(원봉의 친모)는 너를 낳고 하룻밤을 못 새고 죽어 버렸다. **ㄱ** 그때부터 영순이 아버지 인정에 끌려서 **너를 길러 온 어미**(최 주사댁 자신)가 아니냐.

▶ 영순을 둘러싼 원봉과 최 주사댁의 갈등

- 김우진, 「산돼지」

▣ 핵심 정리

■ 배경 : 시간적 - 1920년대

공간적 - 서울 가까운 어느 읍

■ 성격 : 사실적, 현실 비판적, 상징적, 표현주의적

■ 주제 : 식민지 지식인의 저항과 좌절 의식.

■ 특징 :

- ① 상징적인 제목을 통해 현실을 암시(산돼지 : 현실 개혁과 저항 의식)
- ②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함.

▣ 인물 분석

■ 최원봉 : 청년회 간부. 동학군이었던 부친이 관군에 의해 죽어 최 주사에 의해 양육된다. '산돼지'처럼 괴팍하고 저돌적이다.

■ 차혁 : 청년회 관계자. 원봉의 친구이자 영순의 애인이다.

■ 최영순 : 최 주사의 딸로 원봉과 남매 사이가 되고, 차혁을 좋아한다.

■ 최 주사 댁 : 최원봉과 영순의 어머니

■ 정숙 : 최원봉과 약혼했던 사이. 이광은과 동경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온다.

▣ '산돼지'의 갈등 구조

- 이 작품의 주된 갈등: 동학당이었던 아버지의 죽음과 1920년대 청년 지식인인 원봉의 현실적 무력함 사이의 갈등이다. 원봉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사회와 민족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좌절하고 만다. 이러한 원봉의 상황은 1920년대 우리나라 지식인이 처한 상황이기도 하다. 원봉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회와도 갈등을 빚는다.
-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원봉. 하지만 자신의 친구 차혁과 영순의 교체: 최 주사가 영순과 원봉을 혼인시키라는 유언을 남겼고 원봉도 영순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또 하나의 갈등이 된다.
- 원봉의 약혼녀 정숙은 결국 이광은과 함께 동경에 갔다가 돌아온다. 원봉과 정숙의 갈등이 두 사람이 함께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소된다.

▣ 전체 줄거리 요약

주인공 원봉은 정숙과 애인 관계이지만, 정숙은 다른 남자와 일본으로 도망친다. 원봉은 청년회의 간사인데, 바자회의 수입금을 유용했다 해서 청년회에 불신임을 당한다. '산돼지'처럼 저돌적이고 괴팍한 성격을 가진 원봉의 성장 과정은 순탄치 않다. 동학군이던 아버지가 관군에게 잡혀 죽자. 부친과 같은 동학군이었던 최 주사가 그를 데려다 키운 것이다. 최 주사는 딸 영순과 원봉을 결혼시키라고 유언했지만, 원봉은 정숙과, 영순은 차혁과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 원봉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으며, 죽은 부친의 유명(遺命)인 동학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는 현실 상황에 좌절을 맛보며 신경 쇠약 증세까지 보인다. 마침내 정숙이 돌아오게 되고, 원봉과 정숙은 서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주인공 최원봉의 방황과 좌절을 통한 내면적 갈등과 그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갈등 장면을 나열식 기법을 통해 형상화한 희곡 작품이다. 이 작품을 비롯한 근대적 희곡이 나오기 전까지의 한국 희곡들은 대부분 신파극조의 성격을 지닌 것들이었다. 이에 비해 김우진의 희곡들은 이러한 설화적 틀을 벗어나 인간 내면의 갈등과 의식 세계를 파고들면서 근대적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 작품은 개화기의 좌절된 한국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작가 자신의 사회 개혁 사상을 잘 보여 준다. 주인공 원봉은 현실과 이상, 봉건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 개인과 사회 문제에 있어서 저항 의식을 내보이려 했으나, 그것을 이겨 낼만한 뚜렷한 방향이 제시되지 못한 현실의 울타리에 머물고 만다.

또, 이 작품은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표현주의 형식을 상징적 수법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의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근대극을 시도해 보려는 김우진의 실험 정신으로 보인다.

▣ 심층적 이해

이 작품의 주인공인 원봉은 동학 농민 운동에 참여했다가 죽음을 당한 동학군의 후예이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뜻을 받아 양반과 탐관오리들을 무찌르고 원수를 갚아 주지 않으면 산돼지 탈을 벗겨 주지 않겠다는 유언을 남긴다. 주인공은 봉건 제도의 파괴라는 숙명을 지니고 있는 셈인데, '산돼지'라는 제목부터가 사회 개혁의 정신적 표징으로 보인다.

여기에 신여성의 방황과 고뇌, 여동생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깔려 작품의 심각한 분위기를 더해 주고 있다. 특히 여주인공 정숙은 김우진의 애인 윤심덕을 모델로 하고 있는 듯하다. 이 작품은 지은이의 인생관과 시대정신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그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원봉이 자신에게 부여된 현실 개혁의 사명감과 기존 질서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자아를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현실에 대한 저항과 순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순응에서 저항으로, 다시 저항에서 순응으로 이행하는 것이 '산돼지'의 전체적인 작품 구조라 할 수 있다.

▣ 심화 학습

■ '산돼지'의 원봉이 갖는 의미

- ① 남성성(여성성에 대립함) ② 아들(어머니 주사댁과 누이인 영순과 대립됨) ③ 비정상적 출생(동학군의 아들로써 유복자로 태어나 영순, 혁의 정상적 출생과 대립됨. ④ 현실 초월을 지향하나 실패자(현실 안주형인 혁과 대립되는) ⑤ 젊음(최 주사 내외의 늙음, 아버지가 부과한 의무감과 대립됨) ⑥ 사랑의

실패자(혁에게 영순을, 광은에게 정숙을 뺏김으로써 사랑의 승리자와 대립됨)

→ 작품의 제목이자 원봉의 별명인 '산돼지'는, 일상의 테두리 안에 갇혀 어떤 실천도 꺾하지 못하는 '집돼지'가 된 식민지 지식인의 좌절을 의미함.

■ 창작 배경

이 작품은 친구 조명희(趙明熙)의 시 “봄잔디 밭 위에”에서 영감을 얻어 쓴 작품으로, 좌절당한 젊은이의 고뇌와 방황을 음울하게 그리고 있다. 특히, 그의 사회 개혁 사상을 잘 보여 주며, 지극히 몽환적으로 끌고 간 것이 특징이다. 그가 이 작품을 가리켜 자신의 '생의 행진곡'이라고 고백했듯이, 개화기 지식인의 임상 보고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 감상의 길잡이

김우진은 이 작품을 통해 1920년대 후반기를 살아가는 조선인 지식인 청년들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방향 모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 새로운 방향 모색의 한 대안으로 작가는 동학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주인공인 최원봉의 부친이 동학 운동가였다는 상황 설정으로 미루어 보면, 작품의 저변에 깔려 있는 작가의 역사의식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곧, 역사의 방향이 동학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3.1 운동이 실패로 끝난 후 조선의 지식인들은 허무와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내일에 대한 꿈도, 현실을 살아갈 기력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허무와 좌절의 나락에서 헤어나기 위해 청년회(靑年會)와 같은 단체를 조직하여 힘을 모으려고 하였고, 이 단체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 모색의 발판을 삼으려고 했다. 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3.1 운동 이후 일본이 조선인을 유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표방했던 문화 정책과도 맞아 떨어진 까닭이다. 그러나 2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단체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죽을 때 죽더라도'라고 하는 강단을 가져야만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이 작품 발단 부분에 원봉과 차혁이 바둑 두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매우 상징적이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데 길이 막혀 있는 현실은 마치 바둑판에서 바둑알을 놓을 자리가 없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없는 길을 찾으려다 보니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맹목적 의지를 다질 수밖에 없다. 당시 지식인 청년들의 절망 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최원봉의 신경 쇠약증이라는 정신적 파탄도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것이 원인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반봉건의 기치를 내걸고 싸우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동학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혈연적, 시대적 과제였는데 이를 실현하기엔 너무 열악한 조건 속에 놓여 있기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산돼지'이지만 무기력하고 답답하게 지내다 신경 쇠약증에 걸린 '집돼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산돼지'와 표현주의

김우진은 표현주의(expressionism)를 매우 빨리 수용하여 실제 창작에 적용했다. 김우진은 '산돼지' 제2막에서 몽환(夢幻) 장면을 설정하여 최원봉의 부모 이야기를 하고 그 몽환 장면이 그대로 현실의 최원봉에게 연결되도록 하여 표현주의 수법을 원용하고 있다. 당시 신파극에서 근대극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태였던 우리 연극계에 김우진의 이러한 실험은 많은 자극을 주었다.